

가이사에게 바칠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 바칠 것은 하나님께

핵심 구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님을 경탄하며
바라보더라.”

마가복음 12:17

선정된 성경 구절:

마가복음 12:13-17

우리 또한 예수님의 지혜와 가르침에 경탄합니다. 우리의 핵심 구절은 여러 기독교 국가에서 일상적인 표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지 2천년이 지났지만, 이 말씀은 여전히 위대한 진리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본문의 맥락을 살펴보면, 서로를 싫어하던 바리새파와 헤로데파가 힘을 합쳐 주님을 함정에 빠뜨리려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위선적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리새파와 헤로데파 중에서 몇 사람을 주님께 보내어, 말로 그를 함정에 빠뜨리려 하였습니다. 그들이 와서 주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하시고 누구의 말에도 얽매이지 않으시는 줄 압니다. 주님은 겉모습에 휩쓸리지 않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시기 때문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우리가 내야 하는지, 내지 말아야 하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2:13,14). 그들의 말은 위선적이었으며,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뿌리박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신다”는 사실을 단 한 순간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악한 동기를 간파하신 예수께서는 “너희 위선자들아, 왜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을 내는 돈을 내게 보여라.”라고 대답하셨다. 그러자 그들은 데나리온 한 닢을 가져왔다.” (마태복음 22:18,19). 바리새인과 헤롯당원들이 데나리온을 가져온 사실은 그들의 기만을 더욱 드러내는 증거였다.

유대인의 세겔은 성전 봉사를 위한 헌금용 동전이였다. 데나리온은 로마의 동전이였다. 로마 세금은 데나리온으로 납부되었다. 예수님의 비방자들은 지갑에 그 동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겔 대신 그것을 내어줌으로써, 자신들도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합법적이라고 믿고 있음을 드러냈다. 그러므로 그들의 위선은 거짓이었다.

예수께서는 그 동전을 손에 들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내밀었다. 그분은 “이 형상과 글자는 누구의 것이냐?”고 물으셨다. 그들이 “가이사(가이사)의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자 그들은 그분을 경탄하며 바라보았다. (마가복음 12:16, 17). 마태복음은 그들이 “그를 떠나 각자 자기 길로 갔다”고 덧붙입니다(마태복음 22:22). 그들은 스스로 놓은 함정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음모는 실패했고, 이는 후세를 위한 교훈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오늘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신앙 실천과 관련하여 극단적인 대립을 낳는 질문들에 직면합니다. 상반된 철학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강화하기 위해 성경을 이용하려 합니다. 여러 방향으로 끌려갈 때에도, 그리스도와 그분의 가르침은 우리의 닻이 되어 줍니다. 먼저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단순한 가르침을 따르십시오. 심지어 우리의 원수들까지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듣는 자들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네 뺨을 치는 자에게 다른 뺨도 돌려주라. 네 겹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누가복음 6:27-29)

황금률은 우리 일상의 길 위에 찬란한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남들이 너희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그들에게 그대로 해 주라.” (누가복음 6:31). 우리 모두 법에 따라 ‘가이사’에게 마땅히 바칠 것은 바치고, 하나님께는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칩시다.